

2011



최적의 투자처 캐나다

바이오헬스
캐나다의 경쟁력



Canada 

세계 주요 투자기업

- 암젠(Amgen)
-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 바이엘(Bayer)
-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Bristol-Myers Squibb)
-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 주빌란트 생명과학(Jubilant Life Sciences)
- 머크(Merck)
- 노바티스(Novartis)
- 화이저(Pfizer)
- 로슈(Roche)
- 산도스(Sandoz)
-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
- 테바캐나다(Teva Canada)

캐나다 선도기업

- 아포텍스(Apotex)
- 바이오니체 생명과학(Bioniche Life Sciences)
- 캔진(Cangene)
- 카디오파마(Cardiom Pharma Corp.)
- 이뮤노백신 테크놀로지스(ImmunoVaccine Technologies)
- MDS노르디온(MDS Nordion)
- 메디카고(Medicago)
- 온콜리틱스 바이오테크(Oncolytics Biotech Inc.)
- QLT
- 테라 테크놀로지스(Theratechnologies)
- 밸리언트(Valeant)

최근 캐나다 투자현황

화이저(PFIZER)

2010년, 화이저는 몬트리올에 위치한 캐나다 본사를 확장하고 신규 인력 1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규모는 2,200만 달러*에 달했다.

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

2010년, 다케다제약은 전립선암과 유방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 브리티시컬럼비아암센터(B.C. Cancer Agency)와 100만 달러 규모의 연구사업을 체결했다.

에이사이(EISAI INC.)

2010년, 일본의 에이사이는 온타리오주 미시소거에 캐나다 자회사를 개설했다.

오츠카제약(OTSUKA PHARMACEUTICAL)

2010년, 일본의 오츠카제약은 의약품 판매 촉진 및 체계화를 위해 몬트리올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머크(MERCK)

2009년, 머크는 미국 제약시장 성장에 발맞추어 몬트리올의 쉐링푸라우 제조시설 확장에 3,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찰스리버(CHARLES RIVER LABORATORIES INTERNATIONAL)

2009년, 매사추세츠의 찰스리버는 퀘벡주에 전임상 서비스(preclinical services) 시설을 열고 1,000명을 채용했다.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

2008년, 프랑스의 사노피아벤티스는 온타리오주의 신규 백신 R&D 시설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임.



바이오의약

캐나다는 R&D, 임상시험, 제조 부문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자랑하며 글로벌 바이오의약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10대 제약회사 모두 캐나다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R&D와 제조 양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9년, 세계 바이오의약 매출은 8,0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해, 캐나다 바이오의약 부문의 매출은 215억 달러, 수출은 약 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물량 중 약 80%는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약 29,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800개 이상의 의약·바이오기술 사업장이 캐나다 전역에 위치해 있다. 캐나다는 최고의 학술 기관, 세계적인 혁신 과학, 광범위한 연구 네트워크,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 혁신에 우호적인 분위기와 많은 파트너십 기회 덕분에 글로벌 바이오의약 기업들에게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캐나다의 핵심 역량

R&D 부문: 의약 소재의 발견에서 전면적인 제3상 임상시험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의 R&D 부문은 비용 효율적인 수준 높은 연구 및 임상 개발로 정평이 나 있다. 2009년, 캐나다의 혁신적인 제약회사들은 R&D부문에 12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캐나다는 또한 17개 의과대학과 100개 이상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퍼져 있는 약 30,000명에 달하는 연구원들의 연구공동체를 자랑한다. 이러한 연구공동체는 캐나다보건연구소(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와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이하 NRC)가 이끄는 거대한 공공 연구인프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09년, 캐나다보건연구소는 10억 달러에 가까운 보조금과 지원금을 보건 연구에 투입했다. 캐나다는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 역량 부문에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제조 부문: 여러 주요 제약회사들은 캐나다에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국으로, 미국 시장과의 접근이 용이하여 북미 시장의 제약 제조를 위한 최고의, 비용 경쟁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기업들은 시범 사업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이르기까지 저분자 및 바이오로직스 제조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인플루엔자 백신, 펩타이드 치료제, 고형제제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여러 주요 제약회사들의 본거지로, 세계 최대의 복제약 제조사인 아포텍스(Apotex)도 캐나다를 본거지로 활동하고 있다.

제약 서비스 부문: 세계적 수준의 여러 위탁 서비스 업체들이 캐나다에 있으며, 이들은 생명공학 산업 지원에 필요한 신약 개발, 맞춤형 합성, 분석 기술, 임상시험, 제조 및 기타 여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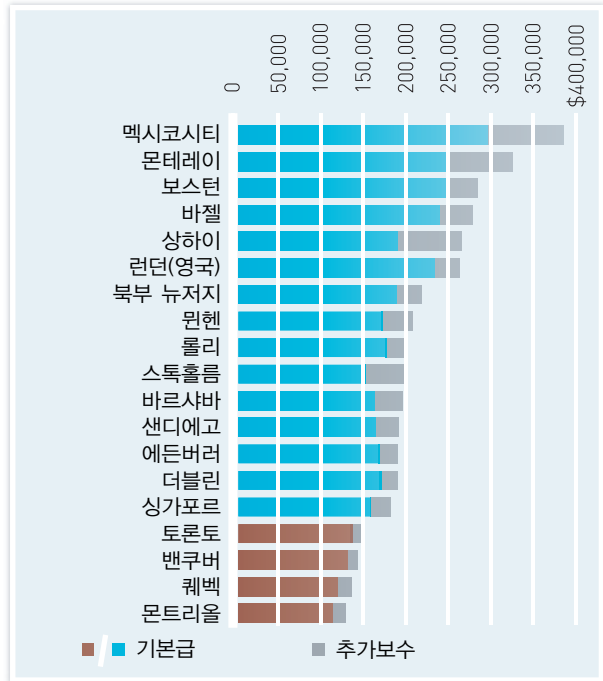
장점:

임금비용의 높은 경쟁력

캐나다의 R&D부문 책임자의 임금 수준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 이 도표는 다국적기업 R&D부문의 책임자 임원에 대한 보수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의 R&D 기능을 총괄하는 R&D부문 책임자는 일정한 숫자의 국가나 단일 제품라인에 대한 대규모 R&D 센터에서 연구팀을 지휘할 수 있으며, 이들이 감독하는 제품은 기술의 수준이 매우 높고 다년간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도표에 나온 보수 수준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인센티브나 성과급 같은 추가 보수도 포함되어 있다.

R&D부문 책임자



출처: fDi 벤치마크, 타워스왓슨, 2010/2011 세계 50대 급여정책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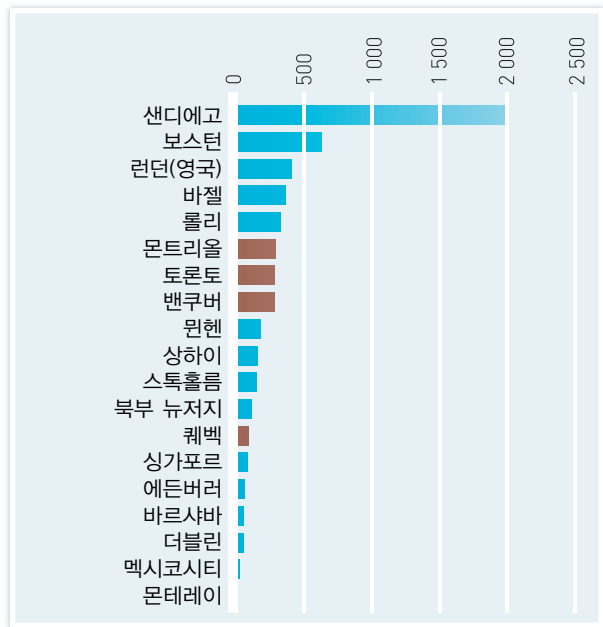
장점:

고가의 바이오의약 특허 다량 보유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에 위치한 캐나다 기업들은 비교적 다수의 바이오의약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 이 도표는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2003년 이후 발행한 바이오의약 산업 특허 추정치를 나타낸다.

제약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수



출처: fDi 벤치마크, 미국 특허상표청 자료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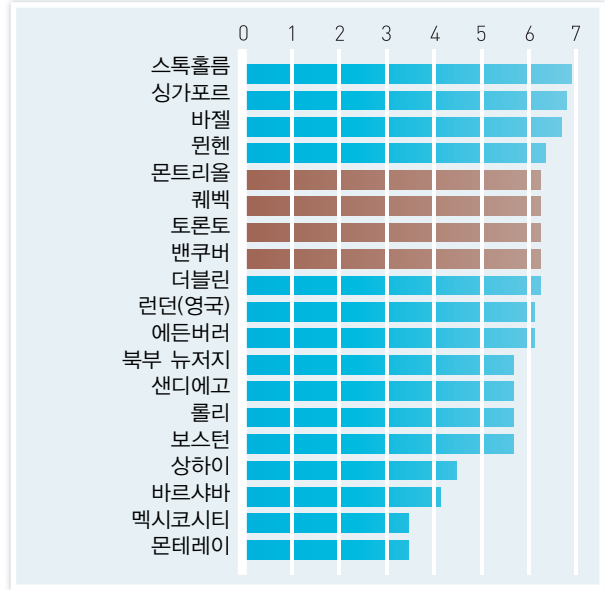
장점:

지적재산권 존중

신제품 개발을 위해 수년간 연구하는 기업에게 지적재산권의 보호(특허권 및 상표권 보호 포함)는 필수적이다. 이 도표에서 나타났듯 캐나다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매우 높다.

- ▶ 이 도표는 주요 도시들을 0부터 7점까지의 범위에서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0점은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낮음'을, 7점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201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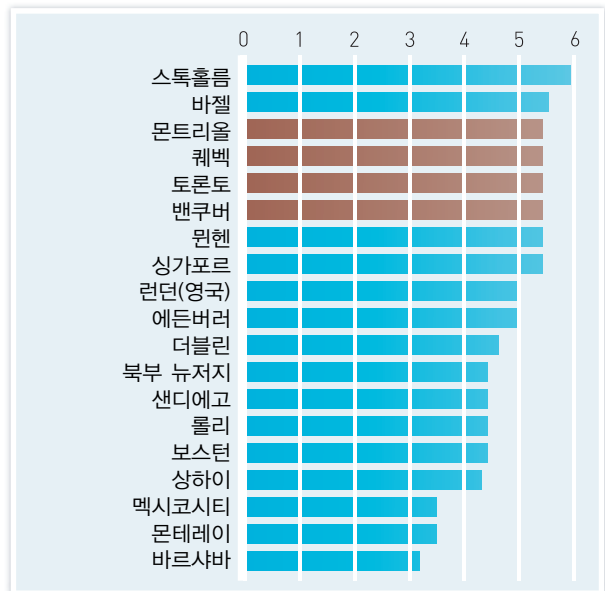
장점:

합리적인 사법체계

캐나다의 사법체계는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연방정부는 특허 및 복제약, 국제무역, 지식재산권 관련 사안 등 국가 차원의 법적 문제를, 주정부는 보건 및 상업권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처리한다. 캐나다의 사법체계는 영국 관습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퀘벡주의 경우 민간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체계를 적용한다.

- ▶ 이 도표는 민간기업 관련 분쟁 해결 시 사법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한 것으로, 0점은 법체계가 '매우 비효율적'임을, 6점은 '매우 효율적'임을 나타낸다.

사법체계의 효율성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2010/2011).

캐나다의 바이오의약 부문: 개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바이오의약 부문에는 90개 이상의 기업에 약 2,200명이 종사한다. 이 부문의 선도기업은 **밴쿠버** 소재 카디움, **버나비** 소재 제논과 같은 최고 기업들이다. 사실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제약 클러스터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암센터(B.C. Cancer Agency), 브리티시컬럼비아질병통제센터(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빅토리아대학(University of Victoria)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들이 있다.

앨버타주 ○

에드먼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원들과 풍부한 바이오의약 연구역량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의 첨단 시설이 있다. 앨버타대학(University of Alberta), 캘거리대학(University of Calgary), 레스브리지대학(University of Lethbridge)은 앨버타주 전역의 기초연구를 위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1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에드먼튼 프로토콜(Edmonton Protocol), 진행암 영상진단 및 치료, 신경 영상, 심장병 및 전염병 치료를 위한 최첨단 연구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혁신적인 민간 기업들은 앨버타주의 연구 환경을 더욱 향상시켰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온콜리틱스 바이오테크(Oncolytics Biotech Inc.), R&D 기업인 NAEJA 제약(NAEJA Pharmaceuticals), 캬루츠(ChemRoutes)가 있고, 그 밖에도 에드먼튼에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길리드사이언스(Gilead Sciences)등이 있다.

서스캐처원주 ○

서스캐처원주에는 훌륭한 연구 시설들이 다수 있으며, 많은 업체와 기관들이 관상동맥질환, 암, 당뇨, 바이러스 감염 백신 개발 및 치료제 연구를 위한 최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스캐처원주에는 노보자임 바이오로지컬스(Novozymes Biologicals)와 POS 파일럿 플랜트(POS Pilot Plant) 등 많은 업계 선도업체들이 있다.

새스캐톤에 위치한 NRC 산하 식물생명공학연구소(NRC Plant Biotechnology Institute)는 국민의 안녕과 보건 증진을 위해 식물기반의 제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스캐처원대학(University of Saskatchewan)의 비영리기관인 백신 및 전염병 기구(Vaccine and Infectious Disease Organization)는 동물 백신 연구 부문에서 다섯 차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관은 인플루엔자와 C형 간염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의 신생아와 성인을 위한 효과적인 백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체 보건분야로 연구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마니토바주 ○

40개 이상의 기업, 30개의 R&D 기관, 23개의 서비스 업체에 4,200명이 종사하고 있는 **위니펙**의 생명과학 클러스터는 바이오의약 R&D와 생산 부문에서 중대한 역량을 제공한다. 이 클러스터는 전염병, 심장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종양학, 신경과학, 약효식품 및 기능성 식품, 진단학에 주력하고 있다.

위니펙에는 캐나다의 10대 생명과학 업체 중 두 곳인 다이어메디카(DiaMedica)와 케인 바이오테크(Kane Biotech)가 있다. 위니펙은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의약품 수출지로, 캔진(Cangene), 아포텍스 퍼멘테이션(Apotex Fermentation), 밸리언트(Valeant), 비타헬스(Vita Health) 등을 중심으로 제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지역은 또한 캐나다 공공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본부가 있으며 세계적으로 드문 4급 질병역제 연구소들 중 하나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두 기관에 힘입어 이 지역은 전염병 진단 및 관리 부문에서 세계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바이오의약 및 의료공동체 중 한 곳이 있는 지역으로 여기에는 마스센터(MaRS Center), 토론토대학 도넬리 세포 및 생체분자연구센터(Donnely Centre for Cellular and Biomolecular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Toronto)와 연구병원과 전문의료기관, 다수의 혁신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 힘입어 토론토 광역권은 게놈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표적치료학 분야의 선도적 R&D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이곳은 바이엘(Bayer), 일라이릴리(Eli Lilly),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 등 세계 유수의 바이오의약 업체들의 캐나다 내 영업 본거지이기도 하다.

오타와는 캐나다에서 바이오기술 부문의 방대한 사업 잠재력을 처음으로 활용한 도시 중 한 곳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NRC와 20개의 생명과학 관련 연구기관들 덕분에 오타와는 의약품, 진단법 R&D(diagnostic R&D) 및 임상 연구를 위한 중심지로 거듭났다. 이러한 기관들은 R&D 부문에 연간 3억 5,000만 달러로 추산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 퀘벡주

몬트리올은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바이오의약 클러스터 중 하나로, 약 15,000명이 이 클러스터에 종사하고 있다. 몬트리올은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뿐 아니라 기초연구 및 위탁연구를 위한 최적지이다. 몬트리올의 클러스터는 임상연구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 바이오정보과학 및 의료기술 분야의 역동적인 벤처기업, 특허약 및 복제약 제조업체들의 지원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몬트리올은 백신 연구와 치료용 단백질 바이오 제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R&D 분야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몬트리올에는 유수의 세계적 연구 기관들이 있는데, 맥길대학(McGill University), 퀘벡게놈혁신센터(Genome Quebec Innovation Centre), NRC의 바이오기술연구소(NRC Bi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등이 그 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머크(Merck), 노바티스(Novartis), 화이저(Pfizer),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몬트리올에 있다.

퀘벡시의 바이오의약 부문은 백신 생산, 위탁연구, 진단학, 의료장비 제조 및 의료기술과 관련된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 아테나젠타리스(Aeterna Zentaris), 아나팜(Anapharm),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등 여러 업계 선두 기업들이 퀘벡 시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심장병학, 게놈학, 전염병, 면역학, 비만, 종양학, 신경의학, 기능성 식품과 약효식품 등에 관한 최첨단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센터 일곱 곳도 이곳에 있다.

2006년 이후, 제약업체들은 자사의 퀘벡주 내 제조설비에 약 10억 달러 가까이 투자했는데, 그러한 결정에는 무엇보다 이 지역의 풍부한 학술, 기술 및 전문 인력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 노바스코샤주

할리팩스에는 머크(Merck), 키토제닉스제약(Kytogenics Pharmaceuticals), 오션뉴트리션(Ocean Nutrition), 아센타헬스(Ascenta Health) 등 치료제 개발과 천연건강식품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된 다수의 선도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아센타헬스(Ascenta Health)는 캐나다의 오메가-3 보조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 두뇌 연구 부문에서 획기적인 치료제와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100명 이상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원들과 의사들을 연결하는 다학문적 연구기관인 두뇌복원센터(Brain Repair Centre)는 할리팩스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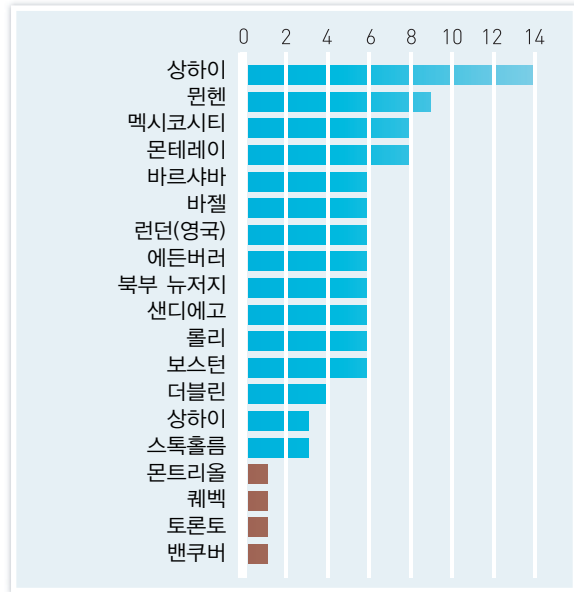
캐나다의 경쟁력

장점:

간단한 사업등록 절차

캐나다에서 사업등록에 필요한 절차는 한 단계뿐이다. 해당 연방 당국이나 지역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여 상호를 등록하면 된다. 법적 지위를 얻은 사업체는 지역당국을 비롯하여 산업부문, 세금 및 노동 규제당국과 교류할 수 있다.

사업등록에 필요한 절차의 수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은행, 2010 기업환경평가.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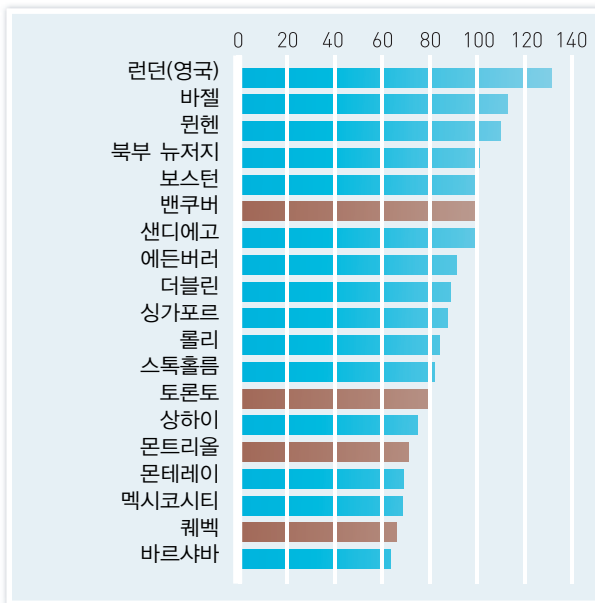
뛰어난 삶의 질과 합리적인 생활비

캐나다의 도시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 바이오의약 클러스터가 위치한 대부분의 유럽 및 미국 도시들에 비하여 토론토, 몬트리올, 퀘벡 등 캐나다의 도시들은 더 낮은 생활비와 더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한다. 2011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밴쿠버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았으며, 토론토와 캘거리 역시 10위권에 들었다.

▶ 이 도표는 주거비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비를 평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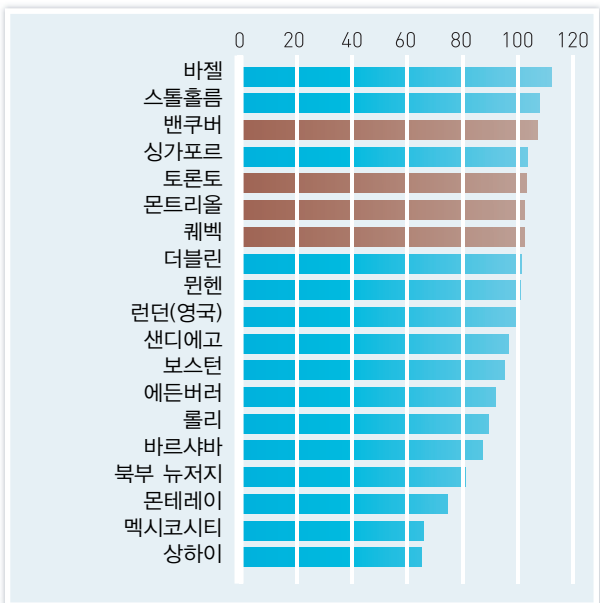
▶ 이 도표는 삶의 질에 관련된 요소를 평가한 것이다.

생활비 지수



출처: 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의 자료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삶의 질 지수



출처: 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의 자료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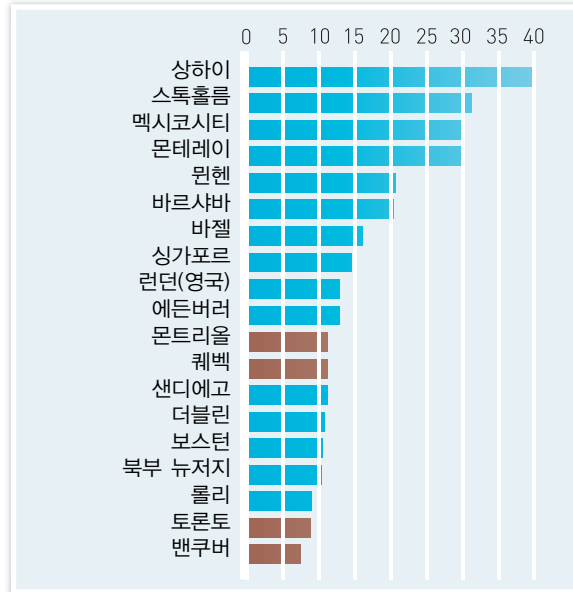
장점:

낮은 사회보장 분담금

캐나다의 근로자들은 매우 훌륭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 비용은 일반적으로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 도표는 근로자의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기업의 분담금을 나타내며, 수치는 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비



출처: fDi 벤치마크, 딜로이트인터내셔널, 국제 세금 및 사업 가이드 (2009년 10월), 타워스왓슨, 2009/2010 세계 50대 급여정책 보고서, PwC, 세계세금보고서(2009년 10월), 타워스왓슨 자료(2010년 8월)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국제사회보장협회(SSA) 자료(2010년 8월)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투자지역 벤치마킹

상기 표와 그래프는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Ltd.)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fDi 벤치마크(fDi Benchmark, www.fdibenchmark.com)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이 검색도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데이터베이스와 입지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부문과 투자사업에 대하여 전 세계 국가, 지역, 도시의 매력도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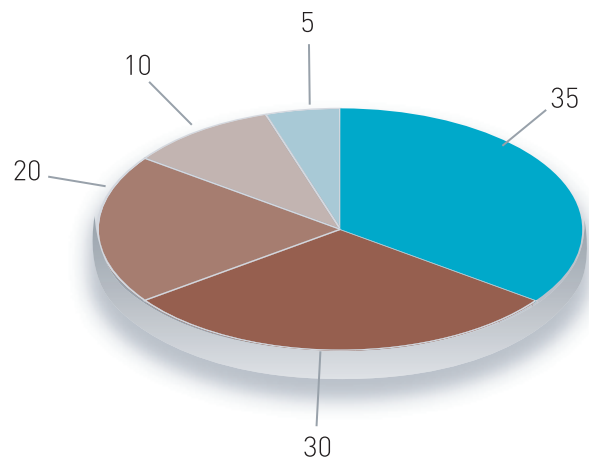
- ▶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된 도시 및 지역들은 바이오의약 제조업체들의 클러스터가 형성된 곳들이다.
선정도시: 바젤, 보스턴, 더블린, 에든버러, 런던(영국), 멕시코시티, 몬테레이(멕시코), 몬트리올, 뮌헨, 북부 뉴저지 지역, 퀘벡, 롤리, 샌디에고, 상하이, 싱가포르, 스톡홀름, 토론토, 밴쿠버, 바르샤바
- ▶ 다음 기업 프로파일은 바이오의약 제조 공장으로 이 공장은 350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산업 시설에, 나머지는 시내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바이오의약 제조 공장

비용 요소	사용량
건물	평방미터
총 사용면적 (시내사무실 임대)	2,300 m ²
총 사용면적 (산업용지 임대)	23,000 m ²
공공서비스	
산업용 가스	40,000 m ³
전력	621,000 100 kWh
물	1,300 000 m ³

직원 유형	인원
제조	
제조 책임자	1
생산 관리자	1
생산 담당자 (고숙련)	40
생산 담당자(숙련)	103
생산 담당자 (미숙련)	25
품질 관리자	1
품질관리 전문가	8
R&D / 엔지니어링	
R&D 책임자	10
실험실 전문가	70
실험실 기술자	15
R&D팀 리더	12
과학자	55

직원 유형	인원
행정	
시설/사무실 서비스 전문가	2
비서	7
총 인원	350



가중모형 개요	가중치
산업클러스터의 존재	35%
노동가용성과 질	30%
일반 사업환경	20%
인프라 및 접근성	10%
주거환경	5%

캐나다의 경쟁력

캐나다는 수많은 장점과 최고의 잠재력을 자랑하며,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고급 인력

캐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2위의 고등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출처: IMD, 2010년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유리한 사업환경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향후 5년간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캐나다를 꼽았습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사업환경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 2011년 3월)

견실한 경제

2009년 3분기부터 캐나다 경제는 6분기 연속 성장하고 있고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된 일자리와 생산량 손실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1년 예산)

금융 안정성

지난 3년간 캐나다의 은행시스템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견실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낮은 세율

신규 기업투자에 대한 캐나다의 전반적인 세율은 G7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법인세율 역시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0년)

과학연구와 실험개발

캐나다는 매우 풍부한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R&ED)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G7 국가들 중에서 R&D 주도 분야의 사업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출처: KPMG, 2010 경쟁력 있는 대안(Competitive Alternatives 2010). OECD)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의 NAFTA가 제공하는 이점을 통해 투자자들은 4억 4,800만 명이 넘는 북미 소비자들과 대륙 전체의 GDP 합산액이 미화 16조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대규모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데이터베이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0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

세계적 수준의 대학, 널리 인정받는 보건 의료 체계, 깨끗하고 친절 한 도시들, 멋진 풍경을 고루 갖춘 캐나다는 사업투자자와 근로, 생활, 가족 부양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출처: 유엔개발계획, 2010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2010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Global Liveability Report 2010))



**캐나다에 투자하십시오.
성공의 시작입니다.**

캐나다 투자청

외교국제통상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서섹스 드라이브 111(K1N 1J1)

vp.investincanada.com

카탈로그 번호: FR5-38/4-2011E

ISBN 978-1-100-18406-7